지역 소식통

정읍시, 수성1 영구임대 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읍시 수성1 영구임대주택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를 본격화한다.

시는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성1 영구임대주택 921세대의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8세대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했고, 현재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200세대를 대상,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층이다.

공급 주택형은 36.54㎡(11평형)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식품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현장 점검

정읍시가 지역 농식품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수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후관리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7월 4일까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40개 업체를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여부와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물과 시설은 10년, 기계와 장비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시는 보조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화재감지부터 스마트정류장까지

정읍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활용 도시 안전·교통환경 개선 '속도'

정읍시가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기 설치 △가로등 비상벨 설치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연지시장 일원 상가 200곳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내 중심지인 연지동과 수성동의 취약지역에는 총 39곳에 가로등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 시 경찰서 112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주목할 만하다. 노후 정류장을 철거하고, 냉난방기와 온열벤치, 공기청정기, 버스도착 안내 단말기를 갖춘 최신 정류장이 연지동 박병원과 잔다리목 일원에 설치된다. 시민들은 더 쾌적하고 신뢰감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반 인프라 확충과 교통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 안전 대응력 강화'

정읍시, 중대산업재해 대비 실전훈련 실시

정읍시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정읍트레이닝센터와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두 곳에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과가 주관하고 시설운영과와 자원순환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정읍소방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다중이용 사업장을 선정해 화재, 스키드로더 충돌 등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학수 시장은 "중대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매뉴얼 숙지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전 부서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청년 '행복UP클래스' 활력 운영

21일까지 7월 클래스 참여자 모집… 퍼스널컬러 진단 등 인기 강좌

부안군이 청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부안청년UP센터 행복UP클래스가 청년 맞춤형 강의 구성과 높은 참여율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025년 행복UP클래스는 12명의 청년 강사가 기획·운영하는 총 50회 강의로 구성, 지난 4월 개강해 6월 현재까지 35회의 강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약 300명의 청년이 다양한 문화 강좌에 참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는 7월에는 '퍼스널컬러 진단', '천연화장품 만들기', '라탄 공예' 등 청년들의 취향을 반영한 인기 강좌 16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약 160명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부안청년UP센터 인스타그램 및 '부안청년톡' 포스트를 통해 가능하다.

행복UP클래스는 청년 강사가 직접 기획한 강의를 또래 청년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군의 청년 정책 프로그램이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는 7월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청년 수요를 반영해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해 연속성과 다양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군민감사관, 공사 현장 안전·청렴 합동점검

부안군은 지난 17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감사관, 사업감독자, 감사팀이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공사 현장 청렴감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진서면 석포리 원암소하천 개선복구사업, 행안면 진동리 부안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등 3개 현장을 방문했다.

점검에서는 군민감사관과 사업감독자, 감사팀이 현장을 찾아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청렴 위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계획 수립, 지시사항 전달,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점검 회의(TBM)가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공사 현장 및 주변을 면밀히 살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감찰관들은 공사 현장에서의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현장 질서 훼손, 공사지연,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30차 정기회의… 고창 위상 높여

충북 보은 법주사 일원서 심덕섭 고창군수 등 31개 회원도시 관계자 100여명 참석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도시 고창군)가 19일 오후 충북 보은군 법주사 일원에서 제3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함안군수, 고성군수 등 31개 회원도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산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세계유산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31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회원도시간의 공동사업연구와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 창립되었다. 고창군은 고인돌유적지와 갯벌이 등재되어 일찍부터 협의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세계유산 공동사업 추진 등 총 4건의 사업이 확정되어, 하반기부터 유소년 한국세계유산 탐험대운영, 세계유산 정책연구회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을 보존·활용하여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부와 함께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고창읍 보건소-덕정마을 간 인도개설 완료

고창군이 지난 18일 오후 고창읍 보건소에서 덕정마을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인도개설공사를 완료하고 기념식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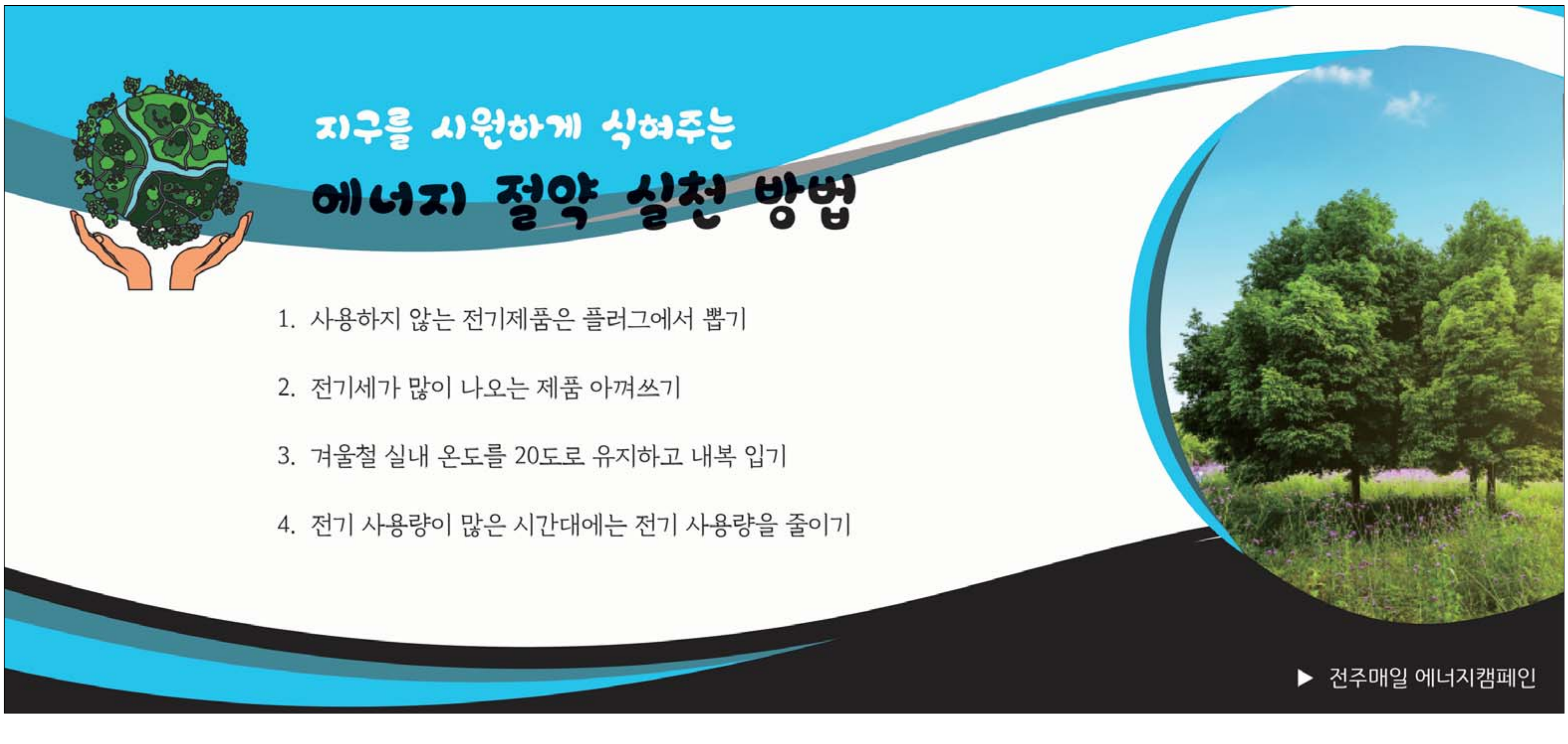
사업은 2024년 12월16일 착공해 총연장 800m, 폭 1.5~2.0m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안전시설물 포함 생활 밀착형 도로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추진됐다.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공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된 본 사업의 완공을 함께 축하하고, 향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계획대로 무사히 준공되었으며, 고창읍 보건소를 자주 찾는 어르신·아동 등 보행 약자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도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위험했던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고창군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도시기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걷기 좋은 고창, 안전한 고창'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인도 개설은 단순한 길 하나를 넘어서 군민의 일상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